

광주시, 7월부터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버팀목 전세자금 대상 자녀수 따라 최대 1% 광주아이키움서 신청

대상은 올해 1월1일 이후 '주택도시금융'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을 신규 대출하고 3개월 이내 혼인 예정이거나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무주택 신혼부부다. 단, 주민등록 및 임대주택이 광주에 소재해야 하며 대출일로부터 1년 이내에만 신청할 수 있다.

녀 이상 1.0% 등 차등 적용되며, 은행에 납입한 총 이자액 범위 내에서 이뤄진다. 청구는 월별 대출금 이자에 대해 연간 2회하면 된다.

신청은 광주아이키움 지원시스템에서 7월1일부터 10월31일까지 '대출사실확인서'를 첨부해 하면 된다.

시는 신청서류를 심사한 후 지원 대상자에게 이자청구 안내문자를 발송할 예정이다. 올해 지원대상자는 11월1일부터 15일까지 대출금 이자계산서 등 금융거래내역서와 주민등록등본을 붙여 청구하면 된다.

특히 올해는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등의 사전절차 이행 기간이 소요돼 7월부터 이자지원 사업이 시행되는 만큼 12월에 1월부터 소급해 지원한다.

이와 관련, 신혼부부 전용 버팀목 전세자금은 '주택도시금융'에서 전용면적 85㎡ 이하로 임대보증금이 2억원 이하인 주택을 대상으로 임대보증금의 80% 이내로 대출이 가능하다.

또 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대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무주택 세대주로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 순자산

가액 2억9천200만원 이하인 신혼부부가 대상이다. 업무 취급은행은 NH농협, 우리은행, KB국민은행, 신한은행, IBK기업은행 5곳이다.

자세한 내용은 '광주아이키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곽현미 시 여성가족국장은 "주거의 안정과 더불어 돌봄 기반 확충을 통해 출산친화 환경 조성에 노력하고 있다"며 "아이날아키우기 좋은 맘(Mom)편한 광주 실현을 위해 지속적으로 생애주기별 지원정책을 확대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정세영 기자

광주광역시 7월1일부터 '광주아이키움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이번 사업은 주거비 마련 부담 때문에 결혼과 출산을 고민하는 청년층과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학운동, 주민자치회 위원 위촉장 수여
광주광역시 동구 학운동은 최근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학운동 주민자치회 위원 위촉식을 개최했다. 학운동은 광주다운 주민자치회 시범동으로 선정된 이후 공개추첨 등을 통해 위원 40명을 선정하고 이날 위촉장을 수여했다. /광주 동구 제공

광주남구장애인복지관, 공공배달앱 활성화

제4주자로 지역 장애인 기관 지명

오지종합사회복지관을 지명했다.

광주광역시남구장애인복지관은 최근 (사)광주광역시장애인종합지원센터로부터 '광주공공배달앱' 이용 활성화를 위한 주문 챌린지에 지명받아 3호 주자로 동참했다고 29일 밝혔다.

광주공공배달앱 주문챌린지는 공공배달앱을 통해 주문·배달한 뒤 응원 메시지를 전달하고 다음 주자를 지명하는 릴레이 방식으로 진행된다.

남구장애인복지관은 다음 주자인 제4주자로 (사)광주광역시장애인재활협회와

한편, 광주공공배달앱 '위메프'는 7월 1일 정식운영을 앞둔 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소상공인을 지원하고자 광주시와 광주시경제공용진흥원에서 출시한 공공 배달앱이다.

가맹점주는 가압비·광고비가 없고, 소비자는 최대 10% 할인을 받을 수 있는 광주상생카드 결제 혜택을 제공한다. 가맹점 등록 등 자세한 사항은 위메프 고객센터 또는 광주시경제공용진흥원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재환 기자

전남도, 여성 소기업 마케팅 지원

제품 디자인 등 역량 강화 내달 5일까지 12개사 모집

이다. 재정과 경영환경이 열악한 여성 소기업이 지원 대상이다. 상품 브랜드 및 제품 디자인 개발, 홈페이지 및 카탈로그 제작, 온라인 유통망과 연계한 홍보·판매 비용 등을 지원한다.

전남도는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77개 기업에 7억9천500만원을 지원했다. 제품 포장재 개선, 누리집 구축, 카카오톡·네이버 등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판매망 구축 등

기업맞춤형 지원을 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지원 대상 기업도 기존 5개사 내외에서 12개사 내외로 대폭 확대했다.

본사 또는 공장이 전남에 있고, 대표자가 여성이며 상시 고용 인원이 10명 미만인 여성 소기업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김종분 전남도 여성가족정책관은 "여성 소기업 맞춤형 지원을 통해 기업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 일자리 창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지훈 기자

전남도가 여성 소기업 제품의 상품가치를 높이고 매출을 늘리기 위한 마케팅 지원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도는 사업비 1억2천만 원을 확보, 7월 5일까지 여성 소기업 마케팅 지원사업 신청을 받아 12개사 내외를 선정해 지원할 계획

광주시, 한국중견기업연합회와 투자유치 협력

중견기업 투자유치 활성화 협약 차·에너지 등 주력산업 기업 발굴

동차, 에너지 분야 중견기업 유치에 서로 협력하기 위한 것으로, 이를 통해 광주시를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경제1번지로 변화시키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광주시 중점 육성 산업분야에 대한 기술정책 자문과 회원사에게 광주시의 투자환경을 홍보하는데 협력하게 된다.

광주시는 중견기업이 사업하기 좋은 투자환경을 조성하고, 광주시 산업육성 정책과 지역 내 협력대상 기업을 소개한다.

또한 양 기관은 투자유치 중견기업 발굴과 광주시 투자유치 활동에 공동 협력하고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해 상호 정보를 교류

할 계획이다.

이용섭 시장은 "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확보하고 있는 네트워크를 활용해 투자의 향 중견기업 발굴 및 투자유치 활동에 적극 협력해주시기를 바란다"며 "중견기업들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가고, 우리 지역에 투자한 중견기업은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기업으로 지속 성장하며 발전해 갈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는 광주에 투자해서 성공한 기업들의 이야기인 '투자유치 성공이야기' 영상을 제작하고, 유튜브 등을 통해 광주 대표산업인 문화산업과 에너지산업 분야 투자유치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코로나19 상황에서도 공격적인 투자유치 활동을 하고 있다. /정세영 기자

광주광역시 29일 시청 비즈니스룸에서 한국중견기업연합회와 중견기업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2014년 7월 설립한 중견기업 대표단체로, 명문 장수기업을 육성하고 기술혁신을 지원하고 있다. 회원사는 오텍캐리어, 한국콜마 등 710개사가 참여하고 있다.

협약은 시가 주력산업으로 육성하는 자



이용섭 광주광역시장이 29일 오후 시청 비즈니스룸에서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반원의 상근부회장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광주시 제공

전남대, 개교 70주년 기념 표어 공모

20자 내외 간결·독창적 표현 최우수·우수·장려상 등 포상

의성 등을 감안한 두 차례의 심사를 거쳐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이 가려지고, 상금도 주어진다.

전남대학교가 개교 70주년을 앞두고 표어를 공모한다.

전남대는 내년으로 다가오는 개교 7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7월 23일까지 4주 동안 표어공모에 나선다고 29일 밝혔다. 공모 주제는 ▲개교 70주년의 의미와 가치를 핵심적이고 함축적으로 나타내거나 ▲전남대의 역사와 미래교육 100년의 비전을 반영할 수 있는 내용 ▲지역사회 및 세계와 소통을 담아낼 수 있는 내용 ▲기타 전남대를 상징할 수 있는 참신한 내용이어야 하고, 20자 이내의 간결하면서도 독창적인 문장으로 표현하면 된다.

응모작은 주제 적합성, 작품성, 창

응모는 전남대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며, 표어(국·영문 모두 가능)와 그에 대한 부가설명을 A4용지 1매 이내로 기술해 접수하면 된다. 1인당 응모는 1점으로 제한된다. 앞서 지난 2012년 개교 60주년에는 '60년의 두드림, 세계와의 어울림, 미래로의 큰 울림'이 당선됐다.

전남대 관계자는 "주요한 단어로 '진리와 정의의 빛', '당당하고 자유로운 전남대인', '자긍심과 품격', '학술·봉사·문화적 역량', '지역·시민·동문을 향한 개방과 소통', '세계적 비전' 등을 참고하면 더 좋은 작품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경태 기자

동구, 청소년 온라인폭력 디지털 정보 삭제

전문업체 연계 디지털 세탁소 운영

료들은 삭제하기도 어렵다. 개인이 디지털 기록물 삭제 전문업체에 의뢰하더라도 최소 수백만 원의 비용이 필요하다.

광주 동구는 온라인상에 무분별하게 게시·유포된 청소년들의 디지털 정보를 삭제 지원하기 위해 광주 최초로 '청소년 디지털 세탁소'를 운영하고 신청자 모집에 나선다고 29일 밝혔다.

최근 온라인 사이버 폭력이 해를 거듭할수록 급증하면서 온라인폭력 유형 또한 모바일 메신저나 페이스북과 같은 SNS를 통해 합성사진 유포, 신상 노출, 특정 학생과 관련된 개인정보 또는 허위사실 유포 등 갈수록 지능적이고 다양한 형태로 진화하고 있다. 특히 온라인폭력은 사이버공간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급속도로 전파돼 피해 및 후유증이 오프라인 폭력보다 매우 크며 온라인으로 게시·유포된 디지털 자

이에 동구는 광주 최초로 '청소년 디지털 세탁소'를 운영하기로 하고 신청자를 모집한다. 운영은 국내 최초 디지털기록 삭제 전문업체인 (주)산타크루즈컴퍼니와 연계해 피해 게시물을 삭제 지원하며, 희망자에 한해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연계 심리치료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모집 기간은 7월 1일부터 상시 모집하며 신청대상은 온라인폭력으로 게시·유포된 디지털 정보 삭제를 원하는 청소년이면 누구나 가능하다. 접수 방법은 동구청 누리집을 참조해 이메일이나 네이버폼 간편 신청으로 수시 접수하면 된다.

/이은창 기자